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안개가 마을에 가득했어요. 강 건너가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천천히 걸어 강을 건너갔어요. 어제 그곳에 가보려고요. 틀림없이 알밤이 길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길에는 어제 보았던 민달팽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까. 어제 그 달팽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달팽이는 어쩌나 느린지 가는지 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민달팽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내 말은 늘 같습니다. '민달팽이에게 도달은 의미가 없다.' (쉴시 '도중' 전문)

억새가 뻗었습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길가에 미국 측 부쟁이가 꽃이 피어 있고 고마리, 불불선화 꽃이 피었습니다. 거미들이 길가 풀숲 여기저기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길목이 좋은 곳에 있는 거미집에는 날벌레들이 여러 마리 걸려 있고, 내가 보기에 별 고민도 별 생각이 없이 얼기설기 허술하게 지은 듯한 집에는 거미줄이 텅 비어 한산합니다. 거미들도 집을 지을 때 부실 공사를 하는가 봐요. 꾀꼬리, 붉은머리 오목눈이, 개개비, 박

가을이 왔어요

새, 직박구리, 딱따구리, 까치들이 안개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들의 아침도 사람들의 아침 출근길 만큼이나 부산합니다.

차가 한 대 내 뒤에 오고 있었습니까. 긴장했어요.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 좁은 길이거든요. 처음 본 차였습니다. 민달팽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차는 그 지점을 이미 지나와 버렸습니다. 저기 저 앞길에 알밤들이 떨어져 있을 텐데, 어쩌다지, 어쩌다지 하다가 손을 번쩍 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바빠라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내가 길바닥에 있는 밤을 줍는 1분만 늦추면 안 되겠냐고 했거든요. 알밤이 있는 길을 지나자, 생밤이 차 바퀴에 걸려 툭툭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삐 걸어가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속살이 하얗게 터진 알밤들이 보였습니다. 용케 '로드 킵'을 피한 알밤을 주었습니다. 길바닥에 있는 알밤 만 주어도 두 손이 가득 차서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풀숲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알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알밤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알밤 송이들이 별결계 벌었습니다. 알밤나무를 발로 차면 알밤들이 후두두 이슬발로 떨어질 것입니다. 알밤이 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알밤 밭 같습니다. 정신없이 알밤을 주을 때, 여기서도 툭 저기도 툭 내 코앞에도 툭 떨어지네요.

금방 땅에 떨어진 알밤은 정말 빨갱빨갱 예쁩니다. 어쩌면 저렇게 밤이 저절로 익어 떨어지며 땅으로 툭툭 떨어지는지 정말 신비롭습니다. 금세 왼쪽 호주머니가

가득 찼습니다. 어쩌나 알밤이 많으니 금방 오른쪽 주머니도 가득 찼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바지 양쪽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가득 차어도 땅에 떨어진 알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아깝지만 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머니에 더는 들어가지 않아 양손에 알밤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주머니 가득한 알밤의 무게로 바지가 자주 내려가 걷기가 불편해집니다.

아까 그 차는 아직 돌아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길은 차가 더 갈 수 없는 막다른 소로 길이거든요. 민달팽이가 있던 곳을 지나갔습니다. 민달팽이 맨몸이 사라진 흔적이 길바닥에 뚜렷했습니다. 민달팽이는 죽으면 물이 되어 버립니다. 뼈와 살이 없어요.

안개가 사라진 맑은 아침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정갈합니다. 낮달이 가고 있네요. 달도 민달팽이처럼 가기는 하는데, 지구의 움직임처럼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노란 꾀꼬리가 강을 건너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어젠지, 그젠지 문득 우리 살갓에 와 닿던 그 신선하던 바람이 새삼스러웠습니다. 그 바람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온 바람이기에 어제와는 다른 바람이었는지, 그 바람은 잊어서는 안 될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입에서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날이 달라졌다고, 이제 좀 살았다고, 바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다니, 내 말이 달라지다니, 자연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다른 말을 하다니, 우리가 놀랍지 않아요?

社說

국힘 의원 '호남 동행' 이번엔 진심이길

국회의원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거 호남에 보내 '제2 지역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호남 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자당 소속 의원 68명을 호남에 배치했다. '호남 동행' 의원은 광주 9명, 전남 40명, 전북 23명으로 총 41개 지역에 67명과 조배부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68명(중복 포함)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지역을 제2의 지역구로 삼아 수시로 호남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일명 '호남 구애 프로젝트'로,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을 적극 공략해 당의 외연 확장과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의지인데 지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호의적이지 않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도 '호남 동행 의원제'라는 이름으로 영남과 충청 출신 의원 48명을 호남에 배치해 제2 지

역구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 애국법, 한전공대법 처리 과정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해 지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 당선권 25%를 호남출신 인사에 할당하겠다는 당헌조차 지키지 않았고 5·18 정선 헌법 전문 수록 약속도 외면하고 있다.

대규모 의원단내 구성하고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은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번 호남 구애 프로젝트도 생색내기엔 그친 21대 호남 동행 의원제의 '시즌 2'에 불과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호남 동행을 내실있게 추진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발대식에서 한 말처럼 '호남에 진심이라는 것, 화합의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진정성을 보인다면 민주당 일당 독점이나 마찬가지로 호남 민심의 텃밭구리를 파고 들 어지는 충분하다.

서민 파탄내는 불법 사금융 뿌리 뽑아야

50만원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매주 100만원을 이자로 부과하는 길바닥에 누르듯 불법 사채 행위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경찰이 광주·전남에서만 최근 3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 394건을 단속해 465명을 검거한 상태지만, 불법 행위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20%이지만 불법 대부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연 120%의 이자를 받고 있으며, 약속한 기한 안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복리로 이자를 받아 채권 액수를 불린다. 그러다 보니 심한 경우는 1주일만에 원금의 두 배 정도를 이자로 불리는 사채업자들도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으로 현금이나 마블대로 마른 서민이나 학생, 소상공인들은 고작 30~40만원을 빌렸다 채우자 수백만원으로 늘어 빛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 사금융의 뜻에 걸리면 채무자는 사채업자가 시키는 대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육설과 협박은 물론 성적 동영상을 요구 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직장에 찾아와 모욕을 주고 지인들에게까지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회 생활마저 파탄나기 십상이다. 실제 수천 만원을 빌린 빚이 복리이자 때문에 크게 늘어난데다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는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전담부를 편성해 적극 단속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해 불법 사채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 20~30만원의 소액이 절실한 서민이나 홀로 공부하는 학생, 청년 등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주시와 전남도는 소액 대출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은 누가 토박이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 지역에 대해 얼마나 소상히 알고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척도로, 거주 기간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 3대 이상 대대로 거주하면 그 지역의 토박이로 인정하는데, 토박이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역에 대해 잘 아는 만큼 폐쇄적일 수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부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시에는 토박이가 적고, 농촌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높아진다.

지만, 서울·인천은 5% 미만, 부산·대전은 25~30%에 불과하다. 광주의 높은 비율은 상당기간 타 시·도에서의 인구 유입이 거 없었고 발전이 그만큼 더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광주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전남의 인구를 대거 받아들이며, 1988년 직할시 승격과 함께 광산군과 송정시를 끌어들이 대도시의 기틀을 잡았다. 광주는 전남을 배후지로 하며, 젊은층도 전남이 고향인 할아버지, 아버지로 갈수록 그 비율은 높아진다.

광주를 비롯해 대도시들은 각각의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 광주는 삼국시대부터 권역의 중심도시였고, 대구는 1601년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일약 대표도시가 되었다. 부산과 인천은 일제가 대륙 침략과 조선 병합을 위해 설치한 경부선과 경인선에 의해 포구에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대전은 경부·호남선의 중간 기착지, 울산은 산업화의 산물이었다. 특이한 것은 내륙에 자리하며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광주·대구의 토박이 비율(추정)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광주는 토박이 비율이 45~50%에 이르

광주와 전남은 떼어놓을 수 없으며 전남이 잘 되어야 광주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광주의 성공은 전남에도 이익이 된다. 광주·전남 간 갈등이 발생하면 이간질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인구 감소, 지역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 속에 광주와 전남은 작은 힘이라도 모아 함께 대처해야 한다. 지역 리더들이 광주·전남의 이점 등 의견 차가 큰 문제를 대할 때 사익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지역 전체와 미래를 보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유현성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토박이

종교칼럼

분쟁과 일치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로 웃어주는 것이었다.

싸움!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도저히 볼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자발적인 보호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존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생명을 불의하게 짓밟히는 것에 대한 항전이었을까? 생명의 보호와 불의한 환경의 변화를 원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싸움의 시작은 흥분과 분노였던 것 같다. 싸움은 쌍방의 의견이 맞지 않아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충돌이라고 한다. 경쟁이나 다툼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지는 것은 싫어하고 이기고 싶다는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의에 항거해 싸우는 것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를 것이다.

신약성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싸움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합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언제나 충돌하는 것 같다. '지체를 안에서 분쟁'이라는 말이 꼭 생각과 말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 일치되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충돌을 지속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되는 일이 없네!'라며 후회하고 자책하여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 분노와 흥분으로 싸움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벌이는 것이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에페소서 4장 2절과 3절에는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라는 말씀이 있다. 앞서 야고보서의 '분쟁'과는 다르게 '일치'를 언급하며 서로를 위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싸움에서 이겨 쟁취하려는 것은 무엇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각자가 가진 원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의미는 같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첨예하게 다른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분쟁의 결과와 일치의 결과 중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결과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효과로 작용하는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분쟁의 결과는 분명하게 분열과 차별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고, 일치의 결과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생명의 길을 걸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실현하려는 최고의 가치인 사랑과 평화를 통한 일치를 위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마르코 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짜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기고

대자보 도시, 그 해법은



신석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복력도시 사업국장

인을 했다. 1996년에는 녹색교통의 핵심인 자전거와 함께 무등경기장에서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했고, 도심 지역인 금남로에서 하루 동안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통해 사람 중심의 거리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2024년부터 2033년까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목표에 핵심인 수송분야 정책을 보면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과 친환경차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견고 싶은 길,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라는 핵심 슬로건을 설정하고 2045년 탄소 중립 광주를 위한 핵심과제인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중이다. 견고 싶은 길, 대자보 도시는 교통의 가장 기본인 보행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견고 싶은 길, 머무르고 싶은 길, 생태 힐링 길, 안전한 등산길, 안전한 길, 대중교통, 자전거 길 등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 추진 방향이다. 편하게 걷고 머무르는 길, 모두가 안전한 길, 자동차 대신 보행을 핵심으로 안전한 길을 만들며 이를 자전거 및 대중교통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는 결국 녹색교통 활성화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2045년까지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의 도로 다이어트, 광천동과 임동 일대의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논의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우려도 크다. 환경적인 승용차 중심의 교통에서 대중교통, 이를 넘어 자전거와 보행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위해서는 승용차 교통이 불편해져야 한다.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 차 없는 거리를 통해 안전한 길을 경험하게 하고 승용차만큼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통해 승용차를 두고 출퇴근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 건강도 챙기고 지구에도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광주시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G-pass정책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비용을 어린이는 무료로 하며 청소년은 50%, 기타 연령층은 차등해 할인해 주는 정책을 빠르게 올 하반기 도입한다. 그밖에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견고 싶은 길 아이디어 공모전, 차 없는 거리 축제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정책의 목표는 변화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시민이다.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다. 9월 22일 차 없는 날! 시민들이 몸소 변화에 참여하게 만드는 정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